

독도 수업지도안 제작 나선 '빛고을 역사교사모임'

“우리땅 독도, 백마디 말보다 한장의 史料가 생생한 교육”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지리적 증거들은 너무 많지만 막상 수업에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 증거 수업 활용 못해”

빛고를 역사교사모임은 학생들의 올바른 한·중·일 역사 인식을 위해 모임 안에 ‘동북 아역사연구회’라는 소모임을 만들고 자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불거지자 아예 독도 관련 수업지도안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개발 중인 수업지도안의 주제는 크게 ▲한·중·일 근현대사 ▲간도·연해주 독립운동 등 두 가지.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역사관련 과목은 국사, 근현대사, 세계사 등 3개. 그러나 국사와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서술은 지극히 미미하다.

노 회장은 “독도 문제에 대해 단순히 애국심같은 감정적 대응만을 학생들에게 주문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어떤 역사적 배경에 의해 독도가 우리 땅인지, 또 독도 영유권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지도·문서 등 자료 수집

박민아(45·전대사대부고) 교사는 “독도는 당연히 한국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며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독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빛고을 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들이 지난해 여름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지역인 고구려의 수도인 중국 지린성(吉林省) 지안현(集安縣)의 환도산성을 답사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빛고을 역사교사모임 제공)

우리나라의 힘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고 국력 신장은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수업지도안의 큰 틀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방송내용 왜곡”

PD수첩 반박 “원본 파일 공개 검토”

바닷모래 불법 채취

여수해경 11명 검거

MBC PD수첩은 1일 광주병 쇠고기 보도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 수사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해경경찰은 1일 바닷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 등)로 김모(40)씨 등 골재채취·판매 업체 대표 4명과 박모(65)씨 등 운반 선박 관계자 7명을 불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일 골재채취 허가가 나지 않은 인천시 동진군 동만도 남쪽 해상에서 바닷모래 1천200㎏을 채취하는 등 2개월여 동안 7천610㎏(9천300여만원 상당)의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 사망설 유포 조선대 휴학생 체포

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학생들 반발

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학생들 반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한 여대생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졌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조선대 휴학생 김모(23)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잡아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국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목소리를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반발했다.

比 한국인 피살 용의자 검거

필리핀 경찰은 지난달 27일 올롱가포시에서 발생한 한국인 일가족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3명의 필리핀인을 체포했다고 마닐라 서쪽 올롱가포시가 있는 삼발레스주의 라올 카스타네다 경찰국장은 1일 “전과가 있는 용의자 일당 5명 중 3명을 체포해 강도 절도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의 ABS-CBN방송이 보도했다.

주거침입 조사 받던 30대 7년전 살인혐의 달미 잡혀

광양경찰 DNA 검사로 불잡아

미군에 빠진 7년 전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DNA 검사에 달미가 잡혔다. 광양경찰은 1일 성매매 상대방을 살해한 일용직 노동자 이모(3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범행 후 7년여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단골식당 여종업원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가 탄로났다. 경찰은 여종업원 집안에서 발견된 이씨의 담배꽂초와 성범죄 전력이 있던 이씨의 구강세포를 채취,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한 결과 7년 전 노씨의 시신에서 발견됐던 정액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씨를 추궁해 범행을 밝혀냈다.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가 1일 오후 우주 비행 후 처음으로 모교인 광주과학고를 방문했다. 이씨가 모교 후배들과 함께 하트모양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이소연 선배 자랑스러워요”

우주 귀환후 첫 모교 광주과학고 방문 은사·후배들 만나고 강연·기념식수도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30)씨가 1일 우주 비행 성공 이후 처음으로 모교인 광주과학고를 방문, 후배·은사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담임 교사였던 이효동 교감이 “명랑하고 밝은 성격으로 집단의 활력소 노릇을 한다. 주어진 일을 즐겁고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씨의 고교 3학년 생활기록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우산 챙기세요’

Weather forecast for August 2nd (Friday, July 2nd). Includes a map of Korea showing rain patterns and a table of daily weather for various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and Jeonbuk.

주말 날씨 이번엔...

Weekend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and Jeonnam, predicting 30mm of rain. Includes a table of daily weather for the weekend.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KCC Gumbok System), offering services like individual property and apartment management.

Advertisement for Gwangyang Hyeokjok 50 (광양항 하역작업 50대), mentioning a case of a person falling from a stone pier.

Advertisement for a 'Seonfungi' (선풍기) murder case, mentioning a 20-year-old suspect and a case of a person falling from a pier.

Advertisement for a memorial service for a former student, Lee So-yeon (이소연 선배 자랑스러워요), mentioning a lecture and commemorative event.